

아시아지역 도서관계의 국제교류*

서 해 란**

목 차	
1. 서 론	3. 한국·중국·일본 도서관계의 상호교류
2. 아시아지역 도서관계의 국제교류체제	3.1 한국
2.1 아시아도서관협회연맹(AFLA)	3.2 중국
2.2 동남아시아사서회의(CONSAL)	3.3 일본
2.3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4. 결 론
2.4 아시아·태평양의회도서관장협회 (APLAP)	

1. 서 론

도서관의 발전과정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도전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국경을 넘어서 찾으려는 사서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도서관 및 정보봉사 분야에서는 수많은 국제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Francis¹⁾경은 도서관계의 국제협력활동이 증가하는 이유를 첫째, 도서관 운영과 정보유통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사서들이 정보봉사의 책임을 다하려면 다른 나라 사서들의 일을 익히 알고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기술에 계속 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rancis 1965, 313) 특히 정보를 처리하고 유통시키는데

* 본 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의 1994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정리한 것임.

** 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1994. 9. 30.

관련된 기술적 진보가 도서관 및 정보봉사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했다.

국가적 또는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서의 정보봉사 역할을 더욱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험을 함께 나누고 정보자원을 공유하는 국제협력의 추세는 아시아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주로 제2차대전 이후 구미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통해 근대적 도서관 활동을 시작한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정보봉사가 잘 발달되고 도서관이 잘 조직되어 있는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아시아지역 사서들 사이의 교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도서관 및 정보봉사 관련 국제협력기구들이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의 사서들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과 함께 최근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화라는 또 하나의 요인 때문에 아시아지역 도서관계의 협력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오랫동안 국교가 단절되었던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과의 국교 수립과 교류의 증가, 세계적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일련의 블럭화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 도서관계의 다양한 국제교류활동 가운데 아시아도서관협회연맹(As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FLA), 동남아시아사서회의(Congress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CONSAL),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of Asia and Oceania: CDNLAO), 아시아·태평양의회도서관장협회(Association of Parliamentary Librarians of Asia and the Pacific: APLAP)의 활동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도서관 및 정보봉사 관계 교류에 관한 현황 조사 및 협력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2. 아시아지역 도서관계의 국제교류체제

2.1 아시아도서관협회연맹(AFLA)

2.1.1 창립

AFLA의 결성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51년 5월 열린 인도도서관협회 제9회 대회에 서였다. 당시 인도도서관협회 회장이던 Ranganathan은 사서의 양성, 아시아지역 각 도

서관에 소장된 학술잡지의 종합목록 작성, 아시아에서 출판된 참고도서와 정기간행물의 목록 작성, 서지 및 목록에서 아시아인명의 번역규칙 확립,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리명세표의 준비, 아시아 각국의 번자안, 사서의 교환, 출판물의 교환, Unesco 및 국제적 비정부기관과의 대등한 관계 유지를 임무로 하는 연맹 결성을 주장했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인도, 일본, 태국, 버마, 말레이시아, 실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라크, 이스라엘 대표들은 AFLA의 결성에 찬성하고 인도도서관협회가 연맹 결성의 준비작업을 맡도록 결정했다.

같은 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일본도서관협회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AFLA 결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 아시아도서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아시아 각국의 호응 부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후 AFLA의 결성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무위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 도서관활동의 협력과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도서관협회가 구성원이 되는 범아시아적 조직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이 지역 사서들은 다시 한번 연맹 결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1955년 10월에 인도의 델리에서 열린 Unesco 주최 '아시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Asia)'에 참석한 인도, 아프가니스탄, 실론, 태국, 파키스탄, 네팔, 버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등 13개국 대표들은 세미나 기간 중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고 1951년에 Ranganathan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 아시아도서관협회연맹(Federation of Asian Library Associations: FALA)의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연맹의 규약을 초안할 임무와 함께 아직 도서관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가의 도서관협회를 구성하거나 구성을 돕는 임무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규약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아시아의 모든 기존 국가도서관협회에 회람시키고 논평과 제안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AFLA는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재정지원을 받아 1957년 11월에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한국,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실론, 홍콩 등 12개국에서 공식대표가 참가하였고 호주, 이란, 멕시코, 미국에서는 업저버를 파견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56년 3월 7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3월 31일자로 AFLA에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이 되었으며,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 編纂委員會 1977, 59) 1957년도에 열린 창립총회에는 당시 한국도서관협회 이사였던 이봉순과 김

원규를 정식 대표로 과견했다.

2.1.2 구성

창립총회에서 심의 통과된 규약은 연맹의 명칭을 아시아도서관협회연맹 (As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FLA)으로 하고, 연맹의 목적을 아시아지역의 도서관활동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회의, 기관지를 포함한 출판물 및 연맹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수단을 통해 도서관봉사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했다.

아시아지역 모든 국가도서관협회에게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회원이 선출한 임원단과 평의회가 연맹의 사업을 맡도록 규정했다. 연맹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회비 규정도 명시했다.

2.1.3 활동

“해마다… 회원국을 차례로 돌아가며 모이고 그때마다 각자 자기네 실정을 보고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도서관인들 상호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다 과학적인 도서관관리를 꾀하게 될 것” (李鳳順 1957, 4)이라는 기대 속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연2회 기관지와 뉴스레터를 출판하고, 사서를 교환하고, Unesco에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도서관 발전을 원조하도록 권고하며, 사서훈련을 위한 기금을 모금한다는 활동계획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의욕적인 활동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AFLA는 그후 한번의 총회도 더 개최하지 못한 채 활동이 중단되어 버렸다. 다만 다음 두종의 출판물과 뉴스레터를 한차례 발행하였을 뿐이다.

- As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1958. *Asian Libraries: Compilation by the Interim Committee for the Delegates to the Organizational Conference in Tokyo, Japan, November 1957*. Manila: Bureau of Public Libraries.
- _____. 1958. *Library Need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aris: Unesco.

2.1.4 평가

비록 창립총회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AFLA의 장래에 대

한 불안은 창립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시아지역 내 국가들의 다양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구 전대륙의 1/4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나 전통, 종교, 정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의 연맹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둘째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지역의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제약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당시 회원국 대부분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저개발 상태에 있었던 AFLA로서는 충분한 활동기금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셋째로 AFLA가 실패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당시 아시아 도서관계의 미성숙에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제2차대전 이후 새로운 도서관봉사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태동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직 국가도서관협회를 구성하지 못한 나라도 많았고, (일본도서관협회가 AFLA 창립총회에 초청한 23개국 중 국가도서관협회가 결성된 국가는 호주, 인도, 이스라엘,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터키 뿐이었다) 협회는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재정적 자원이 빈약한 상태여서 전문직단체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펼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AFLA의 강력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최초의 아시아지역 도서관계 국제단체로서의 AFLA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평가된다. 아시아지역 사서들이 스스로 모여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공통 문제를 논의하며 협력할 것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아시아지역 도서관계의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2.2 동남아시아사서회의(CONSAL)

2.2.1 창립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1970년대가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였다.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결속을 위한 공동조약에 의해 맺어진 국가의 사서들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충분히 이용하여 사서들 사이의 지역적 모임 설립을 촉진시켰다. 그러한 경향의 전형적 예가 되는 것이 바로 CONSAL의 창립이

다. (Soosai 1981a, 19)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모여 1967년에 결성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이들 5개국 간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은 물론이고 학술, 교육, 문화면에도 영향을 주어 동남아시아교육상기구(SAMEO), 지역고등교육연구소(RIHED) 등이 설치되었다. 그런 가운데 1969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동남아시아연구자료위원회(CORMOSEA)와 하와이대학교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공동주최한 동남아시아연구자료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Southeast Asian Research Materials)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동남아시아 사서들의 지역조직체를 될 수 있는 대로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지부로서 결성하며, 그 조직체는 동남아시아지역 도서관 문제에 관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서관교육, 수서, 서지업무 등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결의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도서관협회와 싱가포르도서관협회의 합동위원회는 동남아시아지역의 사서, 도서관, 도큐멘테이션 및 정보센터들 사이의 유대 강화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삼는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1970년 8월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도서관협회 대표들이 싱가포르에 모여 첫번째 회의를 열고 규약을 승인함으로써 CONSAL이 창립되었다.

2.2.2 구성

CONSAL의 창설을 주도한 ASEAN 5개국 사서들은 1957년에 결성되었으나 활동이 중단된 AFLA, 1966년에 결성 제안이 있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던 동남아시아도서관협회연맹(SEAFLA) 등 지역협력기구의 조직이 실패한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CONSAL 조직에 신중을 기했다.

제1회 회의에서 인준한 규약을 보면 정회원의 범위를 동남아시아지역 국가의 국가도서관협회, 국가도서관과 기타 도서관 및 관련단체로 제한하고, 회비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며, 상임 사무국을 두지 않았다. 처음부터 야심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보다는 지역의 사서들이 함께 모여 정보와 교환을 경험하고 가능한 협력활동을 모색하는 비공식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격을 지닌 기구로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CONSAL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확고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2회와 제4회 회의에서 각각 규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회의의 명칭이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에서 Congress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로

변경되었다.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으며 회원인준제도를 정비했다. 회의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회원의 투표권과 규약개정절차 등을 다듬었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매년 정액의 회비를 징수하는 회비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CONSAL의 정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1986년에 ASEAN에 가입한 부르네이이다. 그렇지만 그밖에도 많은 국가의 사서들이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참가자수는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참가자들은 동남아시아지역 내의 사서, 도서관, 도서관학교, 도서관협회 및 관련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 강화하고 협력활동을 발전시키며 다른 지역이나 국제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3년마다 함께 모여 전문적 문제에 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한다.

2.2.3 활동

창립 이후 현재까지 20여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모두 아홉차례 회의를 개최한 CONSAL은 아시아지역 도서관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적 교류활동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표 1>은 역대 CONSAL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10회 회의는 1996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11회 회의는 1999년에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제12회 회의는 2002년 부르네이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CONSAL은 동남아시아지역 사서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전문직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토론하고 교환하는 광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회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주최국 도서관협회에서 출판하는 회의록을 통해 각국의 국내에 산적한 도서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동남아시아지역 나아가서는 세계 도서관계로 관심과 경험의 영역을 넓히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한편 CONSAL은 동남아시아지역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공헌할 목적을 가진 각종 사업과 협력조직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촉매 역할을 맡아 왔으며, 회의 때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토의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국제연속간행 물데이터시스템 동남아시아지역센터(ISDS-SEA), 국가도서관 및 도큐멘테이션센터 동남아시아연합(NLDC-SEA), 동남아시아농업정보은행(AIBA), 지역마이크로필름클리어링하우스(Regional Microfilm Clearing House), *Southeast Asia Microfilms Newsletter*,

〈표 1〉 CONSAL I - CONSAL IX의 회의 내용

회의명	개최지	개최 년도	주제	참가국가 및 참가자 수	비고
CONSAL I	싱가포르	1970	지역협력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국, 영국, 호주, 대만 119명	말레이시아도서관 협회와 싱가포르 도서관협회 공동 주최. 아시아재 단의 재정지원
CONSAL II	필리핀, 케손시티	1973	동남아시아의 도 서관학 교육과 훈련: 국가발전과 관련한 평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홍콩, 한국, 미국, Unesco, 아시아개발은행 160명	아시아재단과 필리핀의 사학보 조기금(Fund for Assistance to Private Education) 의 재정지원
CONSAL III	인도네시 아, 자카 르타	1975	국가정보시스템 (NATIS)의 틀 내에서의 통합된 도서관 및 도큐 멘테이션 봉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대만, 미국, 영국 192명	개막회의는 국제 문서관회의 동남 아시아지부(SAR- BICA)와 공동주 최. Unesco의 재 정지원
CONSAL IV	태국, 방콕	1978	동남아시아에서의 국가정보봉사 발전을 위한 지 역협력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미국, 홍콩, 한국, 독일 284명	태국정부와 Unesco의 재정지원
CONSAL V	말레이지 아, 쿠알 라룸푸르	1981	정보에의 접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미국, 홍콩, 스리랑카, 파키스탄, 부르네이, 일본, 네덜란드, 인도 389명	IFLA의 재정지원 (4,000달러) 호주국립도서관의 재정지원

회의명	개최지	개최 년도	주제	참가국가 및 참가자 수	비고
CONSAL VI	싱가포르	1983	정보혁명 속의 도서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홍콩, 일본, 노르웨이, 덴 마크, 프랑스, 스위스, 네팔, 방글라데시, 대만, 뉴질랜드 392명	호주국립도서관의 재정지원
CONSAL VII	필리핀, 마닐라	1987	동남아시아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도서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본 633명	
CONSAL VIII	인도네시 아, 자카 르타	1990	개발도상국 도서 관봉사에서 의 새 로운 도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네이, 호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미국 740명	
CONSAL IX	태국, 방콕	1993	미래의 여러 국 면과 도서관의 발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네이,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독일, 홍콩, 인도, 이란, 일본, 쿠웨이트, 라오스, 미얀마,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베트남 531명	포스트컨퍼런스 로 제4회 베트남 종합목록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 됨(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베트 남, 일본에서 21명 참가)

*Masterlist of Southeast Asian Microforms*의 발행, 동남아시아지역 사서 및 정보전문가 명감의 편찬 등이 있다.

이처럼 CONSAL은 동남아시아지역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큰 자극제이자 도서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2.2.4 평가

Soosai는 CONSAL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도서관전문직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는 강력하고 생존력이 있는 지역기구로 발전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유사한 지역기구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Soosai 1981b, 417) <표1>을 보면 CONSAL에 참가하는 국가와 사람의 수가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CONSAL이 동남아시아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세계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金子量重 1983, 16)

개발도상국들이 일반적으로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CONSAL이 비교적 충실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다음 몇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들 사이에 비교적 유사성이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CONSAL을 주도해 온 ASEAN 5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비교적 발전 수준이 비슷하고 서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및 정보봉사 면에서도 많은 공통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회의참가자들의 열성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출판된 각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주제가 대체로 적당했을 뿐 아니라 발표된 논문의 수준이 높으며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다. 회의를 조직하는 측과 회의에 참석하는 측이 모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회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셋째, CONSAL은 IFLA, Unesco, SARBICA 등 다른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동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고 있다. 회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도로 자원 확보를 도모하는 것은 조직체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이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간 언어소통에 비교적 문제가 없다는 점도 CONSAL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혜란 1983, 40-41)

2.3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2.3.1 창립

세계의 국립도서관장들이 모여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는 1974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CDNL은 제4회 회의까지는 조직상 IFLA와 무관하되 참석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년 IFLA총회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1978년도 제5회 회의 이후에는 IFLA의 조직에 편입되어 매년 IFLA총회 중 하루 동안 열리고 있다.

CDNL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국립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세계 각국 국립도서관의 권한, 지위, 장서, 서지봉사, 대출, 정보봉사 등 국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정보봉사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역할에 관한 것으로 국립도서관의 책임범위를 정하고 앞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시켜야 할 특정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조사는 CDNLAO가 창립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즉 1977년에 열린 제4회 회의에서 설문조사 실시를 의뢰받은 Chandler 호주국립도서관장은 조사 결과 국립도서관의 지역간 편차와 그것의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발전도상국이 대부분인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국립도서관끼리 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1979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행에 옮겼다.

2.3.2 구성

1979년에 시작된 CDNLAO는 3년마다 한번씩 지역 내 국립도서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도상국의 국립도서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통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회의이다. 그렇지만 매년 IFLA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CDNL의 하부조직이나 지역조직은 아니다.

1985년에 개최된 제3회 회의까지는 회의의 공식 명칭이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도서관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on Resource Sharing in Asia and Oceania)였으나 1989년에 열린 제4회 회의 이후에는 ‘도서관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on Resource Sharing)’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것은 CDNLAO가 회를 거듭하면서 도서관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주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으며, 이제는 회의의 내용을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회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회의의 조직을 강화하여 상임 사무국을 두고 특별위원회나 분과회,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연구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992년에 개최된 제5회 회의에서는 21세기를 앞두고 CDNLAO의 앞으로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해 1993년 12월까지 명확한 목표를 확립하기로 하고 회원국들이 1993년에 태국에서 열리는 CONSAL IX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宮脇峇生, 那須雅熙 1993, 7-8)

〈표 2〉 CDNLAO I - CDNLAO V의 회의 내용

회의명	개최지	개최 년도	주제	참가국가 및 참가자 수	비고
CDNLAO I	호주, 캔버라	1979	도서관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의 개발	호주,방글라데시,중국, 피지,인도,인도네시아, 일본,요르단,말레이지 아,뉴질랜드,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필리핀, 싱가포르,태국,IFLA	IFLA,호주,독일, 뉴질랜드국립도 서관,호주국립도 서관이사회의 재 정지원
CDNLAO II	일본, 동경	1982	아시아·오세아 니아지역 도서관 자원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추진 방법 모색	호주,방글라데시,부탄, 중국,피지,홍콩,인도, 인도네시아,일본,한국, 말레이시아,뉴질랜드, 파키스탄,파푸아뉴기 니,필리핀,싱가포르, 스리랑카,태국,베트남, IFLA,Unesco 20명	Unesco의 재정지원
CDNLAO III	스리랑카 콜롬보	1985	① 국립도서관 일반 ② 국립도서관의 국내적 역할 ③ 국립도서관의 지역적,국제적 역할 ④ 인적 자원의 개발	호주,방글라데시,부탄, 홍콩,인도,인도네시아, 일본,말레이시아,몰디 브,네팔,파키스탄,필 리핀,싱가포르,스리랑 카,태국,중국,미국,영 국,소련,IFLA,Unesco	Unesco, 아시아 재단의 재정지원

회의명	개최지	개최 년도	주제	참가국가 및 참가자 수	비고
CDNLAO IV	중국, 북경	1989	① 지역 내 국립도 서관의 최근 발전 ② 국립도서관의 국제협력과 국내 역할 ③ 지역협력 ④ 자료의 국제교 환과 상호대차	중국,스리랑카,몰디브, 부탄,몽고,태국,인도 네시아,호주,일본,네팔, 뉴질랜드,베트남, 방글라데시,싱가포르, 홍콩,파푸아뉴기니	Unesco의 재정지원
CDNLAO V	말레이지 아, 쿠알 라룸프르	1992	2000년을 향한 비전과 현실	말레이시아,파푸아뉴 기니,싱가포르,일본, 호주,태국,뉴질랜드, 몰디브,방글라데시,부 탄,부르네이,중국,홍콩, 인도네시아,라오스, 네팔,파키스탄,필리핀, 스리랑카	

2.3.3 활동

지금까지 다섯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참가국의 국립도서관장들은 각각 주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관련기관을 견학하는 등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나 관계기관들에게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여 지역내 국립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표 2>는 역대 회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6회 CDNLAO는 IFLA대회의 프레컨퍼런스로서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제2회 CDNLAO의 결정에 따라 CDNLAO Newsletter를 발행하고 있다. 이 간행물은 주로 각국 국립도서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록하며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의 도서관 발전 상황을 아는데 귀중한 매체 역할을 한다. 다만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독립된 형태로 간행되지 못하고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영문 홍보지인 *NDL Newsletter*의 뒷부분에 종이의 색깔을 달리하여 5-6쪽씩 간행하고 있다.

2.3.4 평가

CDNLAO를 설립한 취지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CDNL과는 달리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국립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협력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 지역 도서관 및 정보봉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지역 국립도서관장들이 함께 모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류를 함으로써 도서관자료를 매체로 한 정보량이 현저히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의 공동이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지역내 국립도서관 사이의 친목과 상호이해를 깊게 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田中 梓 1983a, 27)

사실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은 면적이 매우 넓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은 물론이고 도서관의 발달 수준마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역협력체제를 이루는데는 장애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호주나 일본 등 지역 내의 선진국 국립도서관들과 Unesco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CDNLAO의 장래는 그리 비관적이지 아니라고 본다.

2.4 아시아·태평양의회도서관장협회(APLAP)

2.4.1 창립

1988년 호주의 시드니에서 개최된 IFLA총회 의회도서관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국 의회도서관장들은 지역 내 의회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 의회도서관의 경험과 입법정보 및 의회출판물의 교환과 인적 교류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협력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朴英熙 1990, 11)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주봉 국회도서관장과 Lindley 파키스탄의회 고문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1990년 5월 한국의 서울에서 제1회 회의가 열리고 규약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 의회도서관 사이의 협력체인 APLAP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4.2 구성

APLA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의 각국 의회도서관 사이의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각국의 의회에 대한 정보봉사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APLAP은 지역 내 의회도서관장을 정회원으로 하는 총회 및 본회의, 집행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한다. 현재 호주, 방글라데시, 대만, 쿡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솔로몬,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투발루, 바누아투, 서사모아, 뉴질랜드, 한국의 21개국과 아시아재단 및 호주의회도서관협회, 파키스탄의 편집주의회도서관 등 3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총회 및 본회의는 199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의 4개 하부지역으로 나누어 이들 하부지역이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4.3 활동

회원국들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각국 의회도서관봉사의 현상과 문제점 및 계획을 보고하여 경험을 공유하며 회원간의 인적 교류를 도모하는 APLAP은 지금까지 세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1회 회의에서 APLAP의 당면 활동으로 열거된 *APLAP Newsletter*는 현재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 의회도서관의 명감이 간행될 예정이다. 또한 호주의회도서관이 제안한 직원연수프로그램계획과 Karl Min Ku APLAP회장이 제안한 APLAP봉사상 제정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2.4.4 평가

의욕적으로 출발한 APLAP은 두차례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렇지만 앞으로 APLAP이 유력한 지역협의체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 의회도서관들의 규모나 정보봉사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다. 제1회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직원이나 정보자원의 규모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모의 차이는 거의 그대로 제공하는 정보봉사의 종류나 질의 격차로 이어진다.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협력체제 확립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는 언어 문제이다.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문자의 다양성은 회의석상에서의 의사소통에도 장애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각국 의회도서관을 컴퓨터네

〈표 3〉 APLAP I-APLAP III의 회의 내용

회의명	개최지	개최 년도	주제	참가국가 및 참가자 수	비고
APLAP I	한국, 서울	1990	아시아·태평양 지역 입법정보망 구축	호주, 방글라데시, 대만, 룩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투발루, 서사모아, 싱가포르, 한국, 아시아재단 25명	아시아재단과 한국국회도서관의 재정지원
APLAP II	파키스탄, 이슬라바 마드	1992	입법부에 대한 연구와 정보의 지원	호주, 방글라데시, 룩아일 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스리랑카, 태국, 투발루, 바누아투, 서사모아 19명	
APLAP III	태국, 방콕	1994			

트위크로 연결시키려 할 때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중국·일본 도서관계의 상호교류

3.1 한국

한국은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수천년 전부터 같은 한자 문화권 속에서 문화적으로 긴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과는 1950년대 이후 인적 교류, 자료 교류, 학술 교류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교류기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중국과는 정치체제의 차이 때문에 오랫동안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다. 1988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10차 FID/CAO 회의에 한국의 대표단 4명이 참석한 것이 첫 공식적 한·중 도서관계의 접촉이며, 이후 여러가지 경로로 양국 도서관계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李炳穆 1993, 15-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는 1993년 5월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정보연구소 및 광둥성 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1994년 3월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중심과 각각 과학기술정보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협정을 맺고 각종 과학기술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전문인력의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집회의 실시, 공동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의 상호활용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및 중국길림성조선자치주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산하의 북방정보개발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4년 6월 1일부터 3개월간 중국연변과학기술정보연구소 직원 2명에게 중국 관련 정보조사와 분석, 전산정보검색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각각 중국 도서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6월 초에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하얼빈공공도서관과의 자매결연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조만간 중국측 인사의 답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매결연협정이 조인될 것으로 보인다.

3.2 중국

중국의 도서관계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크게 후퇴한 도서관 및 정보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개혁실용주의노선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연수와 연구를 위한 사서의 교환, 강연회와 심포지움, 전반적 경험의 교환 같은 형태의 국제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tuart and Crist 1987, 143) IFLA, FID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CDNLAO 제4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지역 기구에 대한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일본과는 1981년 이후 중국국가도서관인 북경도서관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 매년

5명의 직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상대국의 국가도서관을 교환 방문하는 업무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서의 교환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이 서로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서들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도서관 및 정보업무와 관련된 일본의 선진 기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표 4>는 양국 국립도서관 사이의 역대 업무교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3 일본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도서관계의 국제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표 4> 중국-일본 국립도서관의 업무교류

회차	연도	장소	업무교류주제
1	1981	중국	수집, 정리, 열람/컴퓨터/사진복제
2	1882	일본	참고조사업무/도서선택업무
3	1983	중국	국립도서관의 기구와 체제/국립도서관의 직원배치, 양성관 관리/도서관업무의 표준화/국립도서관 열람업무의 특징
4	1984	일본	관리체제/도서관업무의 기계화/열람, 수서, 장서구성
5	1985	중국	조직, 기구와 직원의 관리/도서관봉사의 전개/네트워크의 현상과 장래/납본제도 및 전국서지/업무기계화
6	198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신관 이전 실시 체제/양 도서관간의 출판물 교환 확대/총무부문의 관리업무
7	1987	중국	신관 개관 후의 조직, 기구, 봉사체제/과학기술관계 자료의 정비와 이용/출판물 교환의 확대
8	1988	일본	출판물 교환의 확대/관리업무, 건물관리/업무교류의 앞으로의 자세
9	1989	중국	자료보관과 이용:복사/도서관의 관리, 운영 및 시설/자료의 교환확대
10	1990	일본	도서관의 관리, 운영:인사관리와 연수/도서관자료의 보존대책/서지정보의 기계화
11	1991	중국	도서관의 관리, 운영:직원연수/업무의 기계화/자료의 보존:마이 크로화를 중심으로
12	1992	일본	도서관업무의 기계화에 따른 업무 및 인적 구성의 조정/국회 서비스/도서관 설비:기계 및 전기계통 포함

국제교류의 형태는 국가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 국제협력과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1969년에 시작한 고등교육에 있어서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미국-일본회의 (일-미대학도서관회의), 1990년에 시작한 일본-러시아 국립도서관 세미나, 1981년에 시작한 일본-중국 국립도서관 업무교류는 특정 국가와의 정기적 교류의 예가 된다. 1990년부터 실시하는 해외사서 일본어연수 프로그램, 일본어자료의 정리와 도서관의 기계화 연수 프로그램, 일본학술정보센터 종합목록시스템 사용법 강습 등은 일본어자료에 대한 해외의 높은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외국 사서 교육프로그램들이다. 일본학술정보센터는 학술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문자코드 표준화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3년간의 계획으로 '동아시아문자 데이터베이스의 국제교환에 관한 실증연구'를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했다. 그밖에 수많은 도서관 및 정보봉사 관계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재정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립국회도서관은 1991년부터 IFLA의 다섯가지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자료보존(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AC)프로그램의 아시아지역센터로서의 책임을 맡아 지역 내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자료보존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하고 있다.

4. 결 론

현대 국가는 국제교류와 상호의존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특히 정보시대의 중요한 국가자원인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로서의 국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세계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간 서지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각종 국제기준의 개발, 국제적 정보망의 구축, 자료의 국제교환, 그리고 도서관이나 도서관협회들의 국제적 또는 지역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조직체의 구성 등은 원활한 국제정보교류를 성취하는 수단이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도서관 및 정보봉사 분야의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기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기구의 목적이 모든 구성원들의 현실적 요구에 합치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의 협력의지가 높아야 하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합리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제반 여건이 대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협력기구를 조직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높은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효율적인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므로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비교적 도서관 및 정보봉사 수준의 격차가 현격하지 않다는 점도 그런 생각의 근거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이미 상호교류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양국 모두 아시아지역의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의 상호교류도 활발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CONSAL이나 CDNLAO 또는 APLAP 같은 아시아의 지역협력체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 및 정보봉사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경제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여러 국가와의 긴밀한 교류가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도서관계는 국제교류를 가로막는 재정적, 기술적 또는 문화적 장벽들을 극복하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활발한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宮脇 苜生, 那須雅熙. 1993. “第五回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國立圖書館長會議.” 國立國會圖書館月報 385:2-10.
- 金子量重. 1983. “東南アジアにおける情報利用に關する國際協力の展開: 第6回 CONSALに出席して.” びぶろす 34(9):12-19.
- 陶山國見, 鶴田眞也, 林 宗元. 1982. “中國國家圖書館との業務交流.” 國立國會圖書館月報 252:2-13.
- 藤田 初太郎. 1990. “議會圖書館の國際協力: アジア太平洋議會圖書館長會議の設立大會に参加して.” 國立國會圖書館月報 353:2-9.
- 朴英熙. 1990. “第1回 아시아・太平洋議會圖書館會議 背景 및 經過報告.” 國會圖書館報 27(3):11-18.
- ブライアン, ハリソン. 1983. “アジア・太平洋地域内の圖書館情報サービスにおける國際協力の最近の發展: オーストラリアからの展望.” びぶろす 34(3):10-14.
- 上野 博. 1983. “第2回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における圖書館資源の相互利用に關する國立圖書館長會議の概要報告.” びぶろす 34(1):10-14.
- 서혜란. 1983. “아시아圖書館界의 地域協力: AFLA와 CONSAL을 中心으로.” 國會圖書館報 20(8):31-49.
- _____. 1987. “東南亞地域의 圖書館協力活動.” 國會圖書館報 24(1):62-74.
- 松本慎二. 1983. “リソスシェアリングに關するユネスコの情報活動.” びぶろす 34(3):17-21.
- 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國立圖書館長會議事務局. 1982. “第2回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における圖書館資源の相互利用に關する國立圖書館長會議の開催について.” びぶろす 33(8):25-27.
- 安江明夫. 1990. “藏書保存の東南アジア: 第八回CONSAL報告.” 國立國會圖書館月報 356:2-9.
- 鈴木 平八郎. 1980. “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における國立圖書館志向.” びぶろす 31(1):1-25.
- 伊藤尙武. 1983. “第九回東南アジア圖書館人會議に参加して.” 國立國會圖書館月報

389:2-7.

- 李炳穆. 1993. “中國의 圖書館과 文獻情報教育 動向.”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15-45.
- 李鳳順. 1957 “出版物交換局의 設置: 印度太平洋地區國際出版物交換研究會에 參席하
고.” 圖協月報 1(6):1-4.
-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圖書館協力部. 1992. “中國國家圖書館訪日團を迎えて: 第一二回
業務交流.” 國立國會圖書館月報 379:14-19.
- 田中 梓. 1982. “第二回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國立圖書館長會議の開催について.” 國立
國會圖書館月報 258:4-10.
- _____. 1983a. “國立國會圖書館における國際協力活動.” 圖書館雜誌 77(1):24-27.
- _____. 1983b. “第二回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國立圖書館長會議を終えて.” 國立
國會圖書館月報 264:2-13.
- 指宿清秀. 1990. “第4回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國立圖書館長會議.” 國立國會圖書館月報
348:2-9.
- 村山隆雄. 1992. “第二回アジア・太平洋議會圖書館長協會會議に参加して.” 國立國會圖
書館月報 379:2-9.
-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1977.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 서울: 韓國圖
書館協會.
- 荒尾正浩. 1986. “第3回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における圖書館資源の相互利用に關する
國立圖書館長會議.” 國立國會圖書館月報 302:2-9.
- Francis, Sir Frank. 1965.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19(6):312-316.
- Soosai, J. S. 1981a. “A Decade of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through IFLA: a
Third World Perspective.” IFLA Journal 7(1):19-23.
- _____. 1981b. “Fifth Congress of the Southeast Asian Librarians(CONSAL V).” IFLA
Journal 7(4):416-418.
- Stuart, R. and Crist, M. 1987. “China’s Libraries in Transition.” Library Journal
112(14):143-148.

ABSTRACT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Libraries and Librarians in Asia

Hye-Ran Suh*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one is a description of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ctivities and an evaluation of the fou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Asian libraries and librarians: As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AFLA), Congress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CONSAL),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of Asia and Oceania(CDNLAO) and Association of Parliamentary Librarians of Asia and the Pacific(APLAP). The other is an investigation of *status quo* of the mutual exchange in librarianship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t is suggested that some ways towar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between Asian libraries and librarians be explored.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usan Women's University.